

예수님 믿고 화평케 하며 사십니까?(히12:14-15)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지만 아담이후 인간 타락의 결과로 지금까지 분쟁과 다툼이 계속 번지게 되었다. 평화를 위해 다른 것보다 필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려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기에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때 비로써 이 세상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며 살 수 있는 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알아보자.

1.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실 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만일 화평케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삼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고, 화평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 반대를 트러블메이커(the troublemaker), 담을 쌓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트러블메이커, 담을 쌓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담을 쌓기에 소통이 단절되고 주변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 담을 쌓는 사람이 되기보다 다리를 놓은 사람이 되어 소통하며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2.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본다”는 “경험한다, 참여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을 추구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며 범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복은커녕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복은커녕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된다.

우리가 복된 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가려면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화평은 삼위일체로 연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방식이기에 분쟁하는 곳에 함께 하시지 않고 임재를 거두신다. 그래서 불화한 가정, 분쟁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기에 복을 받지 못하고 성장과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헐담하고 불화하게 하는 말을 전하거나 퍼지게 하지 말고, 그 말이 나에게서 멈추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화평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3. 화평케 하려면,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쓴 뿌리’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평생 마음을 닫고 살아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오염을 시키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며 살기를 바란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일에 남을 탓하며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허물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하며 피스메이커로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자.

예수님 믿고 화평케 하며 사십니까?(히12:14-15)

1. 마음 열기 - 나의 감정이 가장 많이 상할 때는 어떤 때 입니까?
2. 경배와 찬양 - 찬송가: 412장(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주는 평화

Kendala Groves 다드림선교단 역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

- 주는 평화 - 우리의 평화

- 우리의 평화 영려 다 말기라

- 주가 돌보시니 - 주는 평화

- 우리의 평화 - 우리의 평화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본문과 주일설교를 듣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내가 가지고 있는 쓴 뿌리가 무엇인가요? 또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의 있는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나는 화평케 하는 자(피스메이커, 다리 놓는 사람)로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또 화평케 하는 사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사역나누기

- (1) 이웃초청잔치 '해피데이'를 위해 함께 실천해야 것들을 나누세요.
- (2) 오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 (3)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 (4) 마칠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인사합시다.

“형제님(자매님)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